

“휠체어와 안맞는 장애인 카트...장보기 여전히 어렵다”

대형마트 장애인카트 의무화 4개월...장애인과 마트 동행해 보니

카트 위치 안내 없어 찾기 힘들고 규격 천차만별 “높은 셀프계산대·상품 진열 등 장애인 배려 없어”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타고 있는 휠체어와는 맞지도 않아요”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의 무효화 4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홀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에는 여전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역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선 장애인 배영준(24·남구 행암동)씨는 의무화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해 홀로 장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접을 나섰지만, 마트에 도착하자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에 도착한 배씨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찾기 위해 1층을 뒤지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10여분을 찾다 결국 직원에게 물어 1층 안내창구 옆 구석에 있는 3대의 장애인용 카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용 카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입간판이나 스티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는 장애인용 카트를 찾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겨우 찾은 카트는 휠체어 다리 받침대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수동’ 휠체어용 카트였지만 배씨가 타고 온 휠체어와는 규격이 맞지 않아 탈부착이 불가능했다. 배씨는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전동 휠체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일부러 전동 휠체어 대신 힙겹게 수동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이조차도 맞지 않아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

지난 7월 28일부터 대형마트에선 장애인 전용 쇼핑카트 비치의 의무화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배씨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 한 곳을 더 방문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배씨는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린채 장을 볼 수밖에 없었다. 장바구니가 무릎 위에서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 떨어지기 일쑤였다. 배씨는 끝내 사

고 싶었던 물건을 전부 포기하고 가벼운 씨리얼 한 개만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난관은 카트 뿐만이 아니었다. 계산대는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비좁아 셀프 계산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셀프 계산대가 높아 홀로 계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의무화 되지 않은 동네 식자재 마트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집 인근에 자주 간다는 식자재 마트를 방문한 배씨의 불편은 여전했다.

남구 행암동 한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보다 통로가 좁았다. 배씨는 휠체어만 타고 있었음에도 카트를 끌고 오는 고객이 마주치자 교차해서 지나갈 수 없었다.

또 식자재마트는 음식점에서 쓸 법한 대용량 제품들이 아래에 진열돼 있고, 배씨가 필요로 하는 작은 제품들은 높은 곳에 진열돼 있어 물건을 집을 수조차 없었다.

배씨는 “여건상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어 비장애인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야되는게 늘 미안하고 어렵다”면서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유관부서와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은 배영준씨가 27일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용 쇼핑카트와 본인의 휠체어가 연결이 되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광주 대성여고서 특강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장관)이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를 찾아 '나라사랑 이야기' 특강을 했다.

이날 박 처장은 1학년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호국 보훈 정신과 안중근·황기환·윤동주 등 국내 송환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을 강의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초 이번 특강은 지난 3일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이날까지 미뤄졌다.

박 처장은 '보훈 가족'으로 이어진 인연으로 대성여고를 찾았다. 김오복 대성여고 교장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순진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 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강의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GIST, 미 FDA 승인 약물서 ‘근감소증’ 치료 효과 발굴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팀이 노화 근골격계 질환인 ‘근감소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 약물을 발굴했다.

28일 지스트에 따르면 생명과학부 다린 윌리엄스(Darren Williams) 교수 연구팀이 기존 FDA 승인을 받은 약물들을 검토해 근섬유 위축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진 약물로서 ‘말로틸레이트’를 선별하는 데 성공했다. 말로틸레이트는 기존 관절염 및 간 손상 치료제로 사용됐던 약물이다.

연구팀은 이 약물이 골격근 위축 과정 중 증가하는 ‘5-리폭시게네이즈’라는 체내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근육세포 내 염증 매개인자인 ‘LT B4’ (류코트리엔 B4)의 농도를 낮추

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근육 손실에 핵심적인 조절을 하는 물질(전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인 ‘FoxO3’의 작용을 저해하는 효과도 규명했다.

연구팀은 근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와 노화 실험용 쥐를 이용해 말로틸레이트를 투여했을 때 근육량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근섬유의 직경(지름)이 대조군 대비 평균 46.9% 증가한 것을 관찰했다.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 증가, 근육 단백질 동화과정에 관여하는 체내 호르몬 발현량 증가도 확인했다.

대조군 비교에서도 말로틸레이트를 투여한 그룹의 허벅지 앞쪽 근육(대퇴사두근) 무게가 21.5% 더 증가했고, 측정기구를 잡아당기는 능력

(약력)도 39.3% 더 증가했다.

노화 쥐 모델 실험에서 말로틸레이트 경구투여를 통한 근감소증 완화효과도 확인돼 유사뿐만 아니라 먹는 약 치료제 장점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린 윌리엄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감소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을 제시했다”며 “약물 재창출 전략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는 노인의학 분야 저널 상위 3% 논문인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2022년 10월 1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지역 고교 학생부 수정 너무 많다”

시민단체 “5년 간 4만여건”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수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교 학생부 수정 건수가 4만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513건, 2019년 4768건, 2020년 1만7744건, 2021년 6516건을 정정해 일선 고교에서 매년 4000건 이상 학생부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또한 지난 8월 31

일 기준으로 이미 2519건이 정정됐다. 시민모임은 대학입시 등 학생부 마감일에 맞춰서 정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내용·방식 간소화 등을 통해 정정횟수를 줄여 학생부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이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 2022년 11월 21일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장애인가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새 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